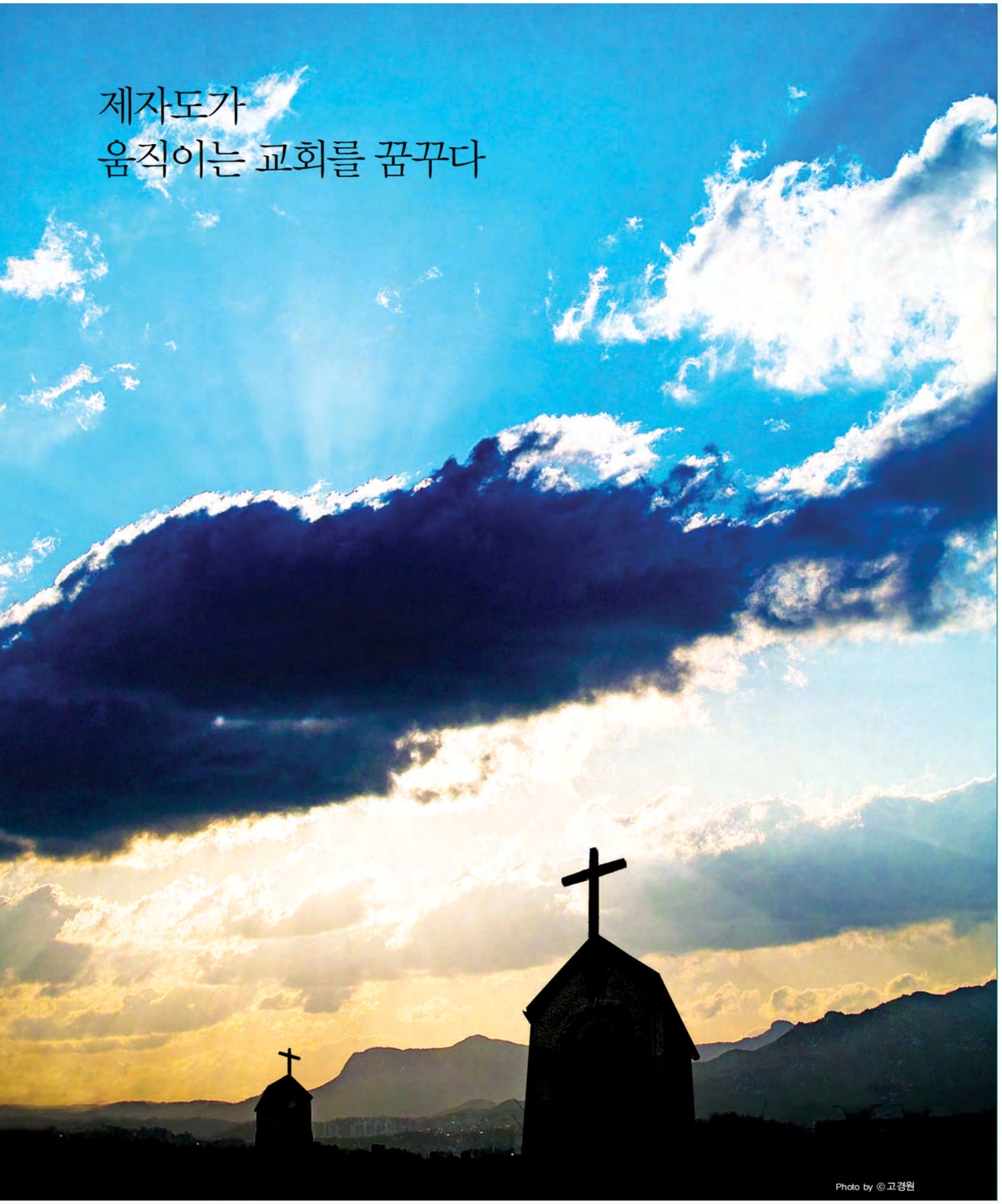


제자도가 움직이는 교회를 꿈꾸다

오승균 목사

고신대원(M. Div)과
고신대학원을 졸업했다(Th. M, 선교학).
현재 마산 성산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마산 성산교회는 오승균 목사가 부임하기 전 담임목회자가 공석인 상태였다. 그동안 교회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담임목회자 청빙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교회 내 의견은 나뉘었고, 한쪽에서 추천하면 다른 쪽에서 반대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다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성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목회자를 찾던 중 오승균 목사에게 연락했다. 오 목사는 강도사 시절에 마산 성산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청빙하고자 한 것이다.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오 목사는 고민에 빠졌다. 우선 마산 성산교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청빙 제안을 받았다면 부임 결정이 쉬웠을 텐데,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섬기고 있던 일산벧엘교회(담임목사 박광석)에 부임한 지도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관계상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워 오 목사는 개인적으로 고민할 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성산교회가 떠나질 않는 것이었다. 오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만 해도 성산교회는 마산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 밭만은 어느 교회보다 따뜻하고 좋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담임목회자가 공석인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들이 이로 인해 점점 그 마음 밭마저 황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잘 준비된 목회자가 부임한다면, 건강하게 변모될 교회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자의 심정으로만 결정 내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교회나 선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마산 성산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며, 자신은 이를 위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 목사는 자신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되었고, 그동안 부족하지만 늘 화평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 목사는 목자의 심정과 목회의 은혜에 이끌려 마산 성산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위기의 순간, 확신을 붙들라

하지만 막상 마산 성산교회에 부임하고 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대부분의 전통 교회가 그렇듯이, 당시 마산 성산교회가 겪고 있고 있던 갈등은 그 골이 적잖게 깊고 넓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서로를 외면한 채 말은커녕 눈빛도 잘 나누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할 뿐, 냉랭함과 삭막함만이 흐르고 있었다. 부임 심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할 뿐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오랜 갈등과 이런 갈등이 가져온 상처로 인해, 서로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새로운 사역을 펼치기는커녕 기존의 사역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이로 인해 앞날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컸던지, 부임 심방을 마치자 저절로 교회로 발길이 향했다고 한다. 새로 부임한 목회자로서 꿈과 포부를 갖기는커녕, 그저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답답한 처지였던 것이다. 그나마 이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

얻은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는 습관이 들어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영적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산 성산교회의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실감하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들이 겪게 된다는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내고 지켜낸 것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막막하던 그 순간 제가 믿고 있었던 확신을 붙잡고 그곳에서 출발하는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 목사가 말하는 확신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무리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당시의 마산 성산교회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승부를 건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곳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훈련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오 목사의 경우 신학교 시절부터 제자훈련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관련 도서와 자료들을 많이 섭렵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담당하면서 훈련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산교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훈련이라는, 성도들을 훈련만 잘 시킬 수 있다면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라면 오 목사가 겪어야 했던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다. 아니 전통 교회에 부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던 확신에 따라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목회 현장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오 목사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을 붙들었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우는 것, 즉 제자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비전에 열정과 진심을 담아라

이렇게 제자훈련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시작부터가 쉽지 않았다. 그가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성도들의 반응이 냉소적이었다. 일부는 비협조적이었고, 심지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컸다. 전임 목회자 사임과 후임 목회자 선정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인해 목회자 전반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했다.

또한 기존의 리더십 그룹에서는 일종의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이 될까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계심은 기성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여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루어왔던 신앙과 삶의 패턴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제자훈련은 기존의 신앙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이런 경계심에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무덤덤한 태도였다. 다들 새로운 목회자가 왔으니 으레 새로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차라리 반대를 하면 설득이라도 할 텐데, 한 번 잘해 보라며 팔짱을 끼고 먼발치에서 관망하고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반대보다 더 힘든 것이 이런 미지근한 태도이다. 물론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수시로 교회 내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시하다가 금새 바꾸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냉소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오 목사는 결국 문제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즉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처음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우선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대일로 만나서, 그리고 강단에서 아무튼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진심을 전하자 진정으로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심이다. 오 목사의 말이나 행동에 제자훈련을 향한, 건강한 교회를 향한 그의 꿈과 비전이 담기자, 성도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다. 제자훈련 목회를 향한 비전에 얼마나 목회자가 사로잡혀 있느냐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비전에 동의하게 만든다고 오 목사는 말한다.

기성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하고자 하는 목회자라면, 오 목사의 말과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자신에게 분명한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제자훈련에 먼저 스스로가 사로잡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심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오 목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중직자들을 칭찬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실시하게 될 제자훈련은 기존의 성도들의 수고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 값지게 만들기 위한 작업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사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할 때 변화를 강조하기가 쉽다. 하지만 변화가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인정해 준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비전 제시의 핵심은 기존의 것들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훈련이 가져다 줄 유익에 대한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과거의 삶과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 줄 때 그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맛보게 하라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진 진심과 열정을 본다면, 그 비전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목회자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지, 자신의 비전이 되지는 못한다. 즉 제자도라

"마산 성산교회의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실감하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들이 겪게 된다는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내고 지켜낸 것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막막하던 그 순간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확신을 붙잡고
그곳에서 출발하는 길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목표를 개인의 소명이자 비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훈련의 열매이다. 오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 제자훈련을 정착하기 위한 열쇠는 훈련의 열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성도들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으로 동의한 것이지 진심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이를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열매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맛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 목사가 이야기하는 훈련의 열매는 무엇일까? 달리 이야기해서 그는 훈련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맛보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훈련 문화가 점차 교회 내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 한 안수집사가 훈련을 신청했다. 사실 이 안수집사는 다소 강한 성격을 지닌 이로, 오 목사가 부임하기 전부터 본의 아니게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신청한 이유도 간단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맞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훈련이나 한번 받아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훈련의 역동성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강력했다. 훈련을 통해 그가 변하기 시작했고, 모든 성도들이 그의 변화에 놀랐다. 결국 장로 선거에서 이 분만이 장로로 피택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성도들이 그의 변화를 인정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 목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계속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피택되는 것이었다. 오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훈련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물론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제자훈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맛보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인도자가 아닌, 제자훈련생들이 아닌, 다른 성도들이 제자훈련생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훈련의 열매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 때마다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만 피택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성산교회의 유익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훈련의 결과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사역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훈련시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전도훈련이다. 전도훈련을 위해서는 그만큼 목회자가 헌신되어 있고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오 목사는 처음 부임하여 전도훈련을 하고자 했는데, 성도들이 전도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 함께 전도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 가르쳤다. 하지만 그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 중에 60세에 가까운 분들이 제자훈련 후 자신들이 교회 내에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없어 고민했다고 한다. 나이가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자신이 없지만, 전도는 열심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까지 받고 평일에 오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전도를 다니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갖다 주고 배를 만들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게 하라"는 말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하자 스스로 자신이 섬길 영역을 찾아 일하게 된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가 누린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많아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는 사역에 대한 꿈만을 꿉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혹은 개척하면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분명 그전에도 전도에 대해 강조했고 실제로 제가 함께 뛰기도 했지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준비되자 오히려 제가 그 사역에 대해 덜 신경 써도 더 잘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임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사역에 대한 꿈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꿈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과 인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을 통해 이렇게 열매를 맛보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오 목사는 훈련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인도자의 모범이라고 말한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목회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한다면, 분명 열매를 맛보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자훈련 현장처럼 목회자와 훈련생이 가까이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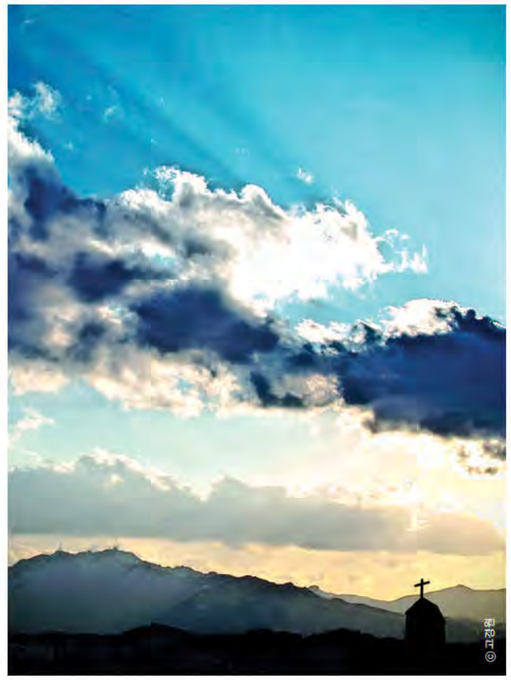
그래서 오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3~4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사실 새롭게 부임한 목회자에게 요청되는 일은 적잖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어쩌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 목사는 목회자의 모범이 없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효과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부터 기도의 장에 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태도는 그의 훈련의 현장에서 지속되었다.

사실 제자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분명한 목회 철학은 물론, 소그룹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관계나 리더십 기술도 필요하다. 제자훈련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모범, 즉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이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야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원리를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제자훈련 인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역량 이전에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다. 비록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자훈련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범과 더불어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이다. 오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훈련을 시작한 후 3년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 여러 변화된 모습도 많이 보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면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이나 훈련시켰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옥한흠 목사님의 '5년은 해야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5년은 채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았던 교회니까, 나는 옥 목사님보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7년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마산 성산교회는 제자훈련을 한 지 7년이 지나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인내한 후에야 비로소 훈련의 참된 맛을 알게 되었다고 오 목사는 말한다. 제자훈련의 열매는 대나무의 성장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늦은 봄기운이 만연하는 5~6월이면 겨우내 딱딱해진 땅을 뚫고 대나무순이 돋아난다. 그리고 6주가 지나면 16미터에 가까운 대나무로 자라게 되는데, 많게는 하루에 1미터가 자라는 경우도 있다. 봄비가 내린 뒤 여기저기서 빠르게 돋아나는 대나무 순의 모습을 빗대어 '우후죽순(雨後竹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한 달 만에 10여 미터가 자라는 대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는 데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자라면서 곧은 자태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지 모른다. 뿌리를 내리는 데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그러면서도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제자훈련 역시 대나무의 성장과 비슷하다. 사람이 변하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한 열매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결국 제자훈련을 중단하거나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으로만 그치게 만든다. 마산 성산교회 이야기를 통해 훈련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심정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제자도가 분명한 목표이자 과정이 되게 하라

또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함에 있어 오 목사는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목회자가 어떠한 사역을 펼쳐도 결코 원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뢰형성이 기반되지 않는 제자훈련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훈련을 위해서는 신뢰형성이 필요한데, 오히려 제자훈련이 신뢰형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오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훈련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을 누린 것은 제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훈련의 현장은 지로 하여금 성도들의 삶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훈련의 현장에서는 서로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훈련이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강단에서의 메시지도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자, 그들이 저를 자신들의 목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훈련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훈련은 다른 목회 사역과 달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함께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훈련은 목회자 자신을 변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목회에 제자훈련까지 하면 사실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삐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쉴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쉬면 뭘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내 본성을 위해 즐기는 것밖에 더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훈련이 힘들지만 훈련이 목회자의 삶과 영성을 지키게 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또래 목회자들이 여러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현재 마산 성산교회는 7기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역훈련까지 마치신 분들은 70여 명으로 이들은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도 양적으로 성장하여, 오 목사가 부임할 때 180여 명 정도였던 장년 출석인원이 350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참된 유익은 교회의 양적 성장도 성장이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저는 참된 교회란 성도들을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도록 만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기도 훈련, 제자 삼는 말씀 훈련,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 훈련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밤 9~10시까지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새들백교회 이야기』에서 릭 워렌 목사가 쓴 것처럼, 모든 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어느 교회는 전통에 의해, 어느 교회는 탁월한 인물에 의해,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해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마산 성산교회 역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제자도이다. 성도로서 마땅히 걸아가야 할 목표인 제자도와 더불어, 이러한 제자도를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 분명히 제시되고, 이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다. 물론 마산 성산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오 목사의 말처럼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 모른다. 하지만 마산 성산교회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산 성산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제자도이기 때문이다. 마산 성산교회를 통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자도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승언 목사〉

당신의 교회는 분명한 제자도가 있습니까?

본질과 효율성.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실제로 교회 성장과 부흥만을 추구하는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은 성경의 원리나 본질보다는 효과적인 결과나 열매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본질은 흐려진 채 효율성만이 강조된, 기형적 교회들이 양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본다.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자료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시스의 회장인 톰 라이너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분명한 제자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단순한 교회』, 생명의 말씀사).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미국 내에서 5%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교회들(불행히도 이런 교회는 미국 내 2% 미만이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하고 분명한 제자도 과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정체 상태에 있거나 감소세에 있는 교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나열만 할 뿐, 제자도가 없거나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든 상태였다. 즉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한 교회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이들 교회의 성도들은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교회가 목표로 삼는 제자도의 정의와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었고, 교회 내 각 프로그램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었다.

둘째, 이들 교회들은 단일한 제자도의 과정에 모든 목회 사역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불행히도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에는 관심이 없는, 특정한 사역에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과 프로그램들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교회는 다수의 프로그램과 사역의 단순한 합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모든 목회 사역들을 단일한 제자도의 과정에 복종시키고 부속시키는 일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셋째, 이들 교회들은 목표로 삼은 제자도의 과정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선의 것에는 '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었다. 본질을 향해 비본질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교회에서는 마치 계주의 바통터치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 각 단계의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 각 단계는 단계의 수료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형편없는 계주팀과 같이, 단일 프로그램에만 열중한 채,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의 교회는 어떤가? 이들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당신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가? 혹시 목회의 본질은 놓친 채,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그램들만이 나열되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의 교회는 제자도의 목표와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마산 성산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제자도의 목표와 과정이 분명히 제시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점이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목회 방법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